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고향사랑기부로 지역 사회 상생 실천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6.23 10:14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윤성은)는 지난 19일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46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윤성은 지사장과 임직원뿐만 아니라 장흥 출신 본사 직원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대한 염원을 담아 이뤄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지난해 270만 원을 전달하며 올해까지 2년째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새로운 도약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을 지키는 데 유관기관이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윤성은 지사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기부는 민간 참여를 이끄는 큰 울림이자, 지역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상징하는 감동”이라며 “장흥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는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해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기부금이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폭 넓게 쓰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춘배 기자 acbae@aflnews.co.kr